

비전 2030과 보건의료

The Health Issues and Policies of Vision 2030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본부 본부장

비전 2030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보건의료욕구 변화와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용효과적인 건강투자를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에 대해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한 서비스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한 삶의 시기와 타전을 서로 연결하는 한편 생애주기상 가능한 한 일찍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비전 2030이 앞으로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약 25년 후까지의 장기적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 설정, 추진전략 개발 등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비전 2030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개혁, 의료급여 제도 개편, 식품안전 보장 강화, 쾌적한 생활 환경과 환경보건 강화 등이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사회보장적 제도로 분류한다면 협의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안전 보장 강화 정도가 남는다.

비전 2030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기본적인 접근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대 혁신과제를 제도혁신 과제(26개)와 선제적 투자 과제(24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도혁신과 관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와 생애 생산성 극대화, 재정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확보 등을 위한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 투자에 대해 비전 2030은 성장 기반 확충이나 기본수요 충족, 향후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서의 예방적 투자로 정의하고, 활력 있는 경제유지와 국민의 기본육구 충족,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 국가안전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매우 타당한 접근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 2030은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세계 최고 수준인 7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면서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별로 제시된 것이 없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개혁, 식품 안전 그 이상의 적극적인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이다.

건강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 자본 증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 투자이다.

건강에 대한 투자, 그 중에서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수익률이 매우 높은 투자이다.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등 직접비용과 시간비용 등 간접적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와병 및 활동제한 등으로 인한 국가적 생산성 손실과 소득기회의 상실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효율이 높은 투자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높은 투자효율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개인들의 지식이 향상될 수는 있으나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운영이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주 언급되고 있는 주제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아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는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임에 틀림없으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 내실을 다져 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생애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출생→가정→유치원·보육시설→학교→산업장→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타전을 넘나든다.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겪게 되는 건강문제도 특성을 달리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삶의 타전에서 겪게 되는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얹혀진 건강 문제에 대응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고령에 이른 후 지역사회에 살면서 나타내 보이는 건강문제나 욕구는 생의 앞 단계에서 가졌던 건강문제의 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인생경로를 겪어 온 만큼 건강문제나 욕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접근과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중요하다.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타전이 다르다는 점

은 수요자들이 가진 건강욕구의 특성을 결정짓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산업장, 학교,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삶의 터에 따라 서비스 공급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삶의 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전략의 개발도 중요하다.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서 뿐 아니라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개인에 대한 국가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일찍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기에서부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건강지식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과 과정에 보건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학교단위에서의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개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개인의 “건강파수꾼”이나 “조력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미처 인식하기 이전에 예방접종 시기나 진료시기 등을 알려준 다거나, 각 개인들의 욕구를 미리 추정하여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사전에 마련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일종의 의료서비스 ‘수요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즉,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 의료수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편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저비용의 장기요양병상 확충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오고 있는 대책의 하나이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노인수발 보장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 재정수지 전망이나 서비스 이용행태 변화 전망 등을 토대로 보다 정교하게 제도적 틀을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전 2030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함께,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개발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포괄적 의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FTA 체결이나 WTO DDA 등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 관련 대책도 포함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